

녹슨 기관차의 알레고리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박은영

朴銀英

弘益大學校 講師
서울하우스 編輯長
韓國美術研究所 研究員
弘益大學校 美術史學科 博士
近現代美術史

파주시 임진각 공원에는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¹ 일명 '화통'으로 불리는 녹슨 기관차가 놓여 있다¹. 임진강변에 위치한 그 장소는 지금은 끊어진 옛 경의선 철도가 지나가던 곳이다. '화통'은 한국전쟁 때 휴전선에 가까운 장단역 부근에서 파괴되어 오랫동안 비무장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 2000년대 들어 이 녹슨 기관차는 역사적 의미에 따른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2004년 근대화유산으로서 등록문화재가 되었고, 2006년부터 2년간 보수작업을 거친 후 현 위치에 세워졌다.² 현재 '화통'은 공원의 기념물이 되어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비무장지대에 있는 동안에는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되어 실물을 보기가 어려웠다. 그 대신 '화통'의 사진들이 교과서, 신문, 잡지, 홍보물 등에 계속 복제되었고 오랜 기간 널리 유포되었다. 즉 이 기관차는 실물보다 이미지로서 우리에게 이미 친숙해져 있었다.

본래 '화통'은 1943년 일본에서 제작한 '마터2형'³ 기관차로, 한국에서 운행되

* 필자의 최근 논저: 「한국전쟁 폐허와 그 이미지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12; 「성두경의 한국전쟁 사진: 거리두기와 폐허의 미」, 『시대의 눈: 한국근현대작가론』, 학교재, 2011.

¹ 이 녹슨 기관차는 예전에는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화통'으로 통용되었고, 일반적으로 간단히 '화통'이라 불렸다. 2004년 이 기관차가 등록문화재로 등재될 때 문화재청에서는 그 이름에서 '화통'을 삭제하고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라는 명칭을 공식 채택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후 편의상 '화통'으로 칭한다.

² '화통'의 이전설치와 장소에 대해서는 박노천·안승홍,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이전지 기념공간 설계」, 『한국조경학회지』40:4(2012. 8), pp.51-61 참조.

³ '마터형'이란 'Mountain형'의 일본식 줄임말로, 여객과 화물 양용으로 쓸 수 있고 산악지대에서도



1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입진각
 필자촬영 (2011. 7. 26)

있던 모든 증기기관차 중 최대 견인력을 가진 차종이었다. 이 기관차는 북한에서 운행하던 것이었는데 한국전쟁 때 미군이 획득해 사용하고 있었다. 경의선을 오가던 '화통'은 1950년 12월 31일 밤 개성에서 평양으로 북진하다가 저지당해 서울로 남하하던 중 파주 장단역에 멈춰 미군의 기총사격으로 파괴되었다. 이날 중공군의 3차 대공세가 시작되어 유엔군이 퇴각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장단역에서 연합군은 후퇴하기 전 선로를 차단하고 나중에 북한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관차를 손상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장단역을 점령했던 북한 측이 기차의 화물칸들을 끌어가고 기관차는 폭파시켜 선로를 벗어난 것으로 추정된다.⁴

휴전 후 장단역이 남측 비무장지대에 갇히게 되자 '화통'은 56년간 같은 자리에서 녹슬고 풍화되어 자연 풍경의 일부가 되어갔다. 움직여야 할 기관차가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는 것은 교통통신의 두절을 넘어 남북 간 소통의 전면적 단절을 의미했

사용할 수 있도록 강한 힘을 갖춘 증기기관차의 일종이다. '마티2형'은 '마티1형'보다 동륜직경과 중량을 키워 수송량을 증강시킨 전시 설계형 기관차였다. '화통'은 일본 가와사키사(川崎車輛)에서 제작한 마티2형, 10호 기관차로 밝혀졌다. 하은하, 「근대문화유산 경의선장단역증기기관차의 보존에 관한 연구(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p.40-43 참조.

⁴ 하은하, 위의 글(2008), pp.44-45 참조.

다. 중단된 철도에서 머리를 북쪽으로 향한 채 서 있는 '화통'은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표어와 어울려 민족의 분단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화통'의 이미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특정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수단이 되거나 문학적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미지는 실물과 달리 조정될 수 있고 대량 복제될 수 있으며 쉽게 다양한 텍스트 속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화통'의 사진 이미지는 재현상태와 맥락(context)에 따라 다의적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 이미지는 기존의 상징적 의미에 계속 의미가 덧씌워짐으로써 새로운 상징성을 띠며, 그러한 변화하는 상징은 곧 알레고리에 해당된다.

또한 '화통'이 근대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한국전쟁의 역사적 유물이 되었음을 나타내는데, 이는 낡은 잔해물이 공식 기념비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인위적 파괴물이자 자연적 폐허였던 녹슨 기관차 '화통'은 보수작업을 통해 재탄생함으로써 위장된 폐허로서 또 다른 의미의 층을 얻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화통'의 사진 이미지들의 역사적 수용 양상을 정리하고 국가적·민족적 아이콘으로서 코드화된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보다 넓은 관점에 따른 유동적 의미와 녹슨 잔해로서의 '폐허미'를 도출함으로써 '화통'의 알레고리적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서 '화통'이 오늘날 대중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통해 현대의 기념비이자 시뮬라크르(simulacre)로서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I. '화통' 이미지의 역사적 수용

1. 분단과 반공의 이미지

'화통'은 전쟁 후 복구작업이 이루어지고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0년대부터 일반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는 시사문예지들이 활발히 창간되었는데, 그 잡지들은 한국전쟁을 상기시키는 특집기사나 화보에서 종종 비무장지대의 녹슨 기차들을 등장시켰다. 1964년 6월 『세대』지에는 전쟁 관련 흑백 사진들이 몇 페이지에 걸쳐 실렸는데⁵ 그중 한 면에는 잡플 속에 놓인 장단역 '화통'의 사진이 들어 있다². 사진에 적힌 설명문에 의하면 이 기관차는 총포에 몸뚱이가 뚫려 "무성한

⁵ 「戰爭-永遠한 不條理」, 『세대』(1964. 6), pp.17-26.

잡초” 속에 “버려진 고철”로서 “6·25의 참극이 빚어낸 슬픈 유산”으로 제시되었다.

‘화통’에 대한 이와 같은 전쟁의 비극적 투영은 시각 이미지뿐 아니라 문학에도 자주 등장했다. 1969년 姜仁燮(1936년생)이 발표한 시 「녹슨 경의선」에서는 “임진강 철교 앞에서 가쁜 숨소리/ 몰아쉬며/ 험덕이던 기관차는/ 논두렁에 처박힌 채/ 파선의 잔해처럼 녹슬어 간다”고 하면서 민족을 이어주고 독립에 기여했던 기차가 분단으로 더 이상 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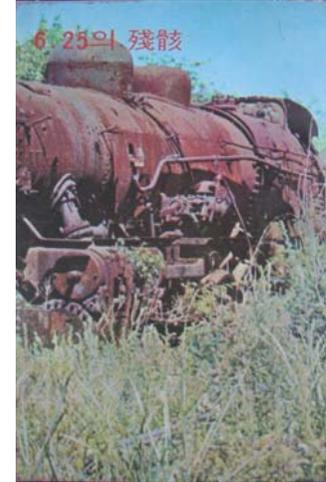


직일 수 없음을 개탄한다. 그러나 시의 끝 부분에서 “참으로 우리들/ 단힌 가슴들을 평평 티드리며/ 번득이는 햇볕으로 녹슨 레일을 닦아내고/ 한 줍씩 땀방울을 뿜어/ 쓰러진 기관차를 다시 세워야 하거늘/ 아! 녹슨 쇠덩이는/ 오늘도 북을 향해 우짖고 있다”고 하여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다.⁶ 이 시는 분단의 비극을 통일로의 열망으로 전환시킨 초기의 사례에 해당된다.⁷

분단의 슬픔과 통일의 희망이라는 양면성은 1970년대 이후 ‘화통’ 이미지가 더욱 널리 활용되는 요인이 된다. 1970년대에는 7·4 남북공동성명(1972)이 발표되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이 개최되는 등 남북 간의 접촉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른바 ‘유신’ 치하에서 영부인 저격사건(1974), 판문점 도끼만행사건(1976) 등이 발생해 한편으로는 첨예한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반공사상’이 더욱 강조되었고 남한의 산업화와 발전상이 적극적으로 홍보되었다. 이 시기에 ‘화통’의 사진은 대중을 위한 반공교육의 자료로 이용하기에 적합한 이미지로 종종 선택되었다.

『세대』 1970년 6월호에는 한 장짜리 양면 원색화보가 삽입되어 있는데 앞면에는 ‘6·25의 잔해’라는 제목을 달고 설명문 없이 ‘화통’의 부분 확대 사진이 실려 있다⁸. 그 뒷면에는 새로 개통된 한강대교의 사진이 서울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⁹. 잡초에 싸인 채 검붉게 녹슬어 가는 기관차의 이미지는 전쟁의 결과 실용성을 잃어버린 퇴물로서, 1960년대부터 추진해온 재건·개발의 개념과 확연히 대비

2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세대』 1964. 6 화보



3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부분’ “6·25의 殘骸” 『세대』 1970. 6 화보

4 경부고속도로 “首都서울의 動脈” 『세대』 1970. 6 화보

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멸공의식으로 재무장할 反共자료를 남기고자” 시도한 특별기획물 중 하나였다.⁹ 게재된 사진은 ‘화통’의 뚜껑이 열린 火口 부분을 클로즈업한 것인데, 기관차의 시커먼 덩어리가 마치 입을 벌린 괴물처럼 강렬하고 위압적인 느낌을 준다. 잡지 중간에 접어 넣은 그 페이지를 떼어내면 그대로 교육용 포스터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무서운 전쟁의 위협을 상기시키고 그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철저한 반공정신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을 드러낸다.

‘화통’의 이미지는 지속적으로 반공에 이용되면서 사실이 왜곡, 과장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1986년 6월 20일자 『경향신문』에는 한국전쟁 36주년을 맞아 ‘화통’에 대한 기사가 컬러사진들과 함께 올라왔다. 그 기사에는 “신의주로 달리던 이 증기기관차가 기습남침한 괴뢰군의 포격에 맞아 장단역을 눈앞에 두고...”라는 잘못된 내용이 들어 있다.¹⁰ 오늘날 알려진 사실대로 바로잡자면 “서울로 달리던 이 증기기관차가 퇴각하는 미군의 총격으로 장단역을 바로 지나...”로 바꿔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이 몇몇 언론의 예외적인 실수가 아니라, 당시 ‘화통’에 대한 보수적 시각을 대변하고 또 일반적 시각을 형성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반공교육에 의해 만들어지고 주입된 집단적 기억 속에서 ‘화통’은 인민

된다.

또한 ‘화통’ 사진들은 전쟁의 상처를 나타내는 증거이며⁸ ‘북괴의 도발’에 대한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일깨우는 장치로서 종종 등장했다. 반공 홍보잡지 『南北』(1978년 7월호)에는 ‘통일교육시각교재’라는 명목으로 ‘화통’의 부분 사진을 크게 실은 3페이지 분량의 접은 면이 삽입되어 있다⁵. 그것은 “建國 30週年을 맞이하여 북괴의 대남 도발을 현장사진과 함께 시리즈로 엮음으로써 국민들

6 강인섭, 「녹슨 경의선」, 『녹슨 경의선』(범우사, 1969), pp.144-149.

7 김재홍, 「우리 현대시 속의 DMZ」, 이반 엮음, 『비무장지대의 과거, 현재, 미래』(비무장지대에술문화운동연구소, 1995), p.331.

8 『南北』 1978년 6월호에는 “남침의 포격으로 레일에서 밀려나 전쟁의 상처를 말해주는 장단驛의 플레이트 폼”이라는 캡션과 함께 ‘화통’의 사진이 삽도로 실려 있다. 『國民總和로 북괴의 後方교란戰術에 對備해야』, 『南北』(1978. 6), p.15.

9 『南北』(1978. 7).

10 「녹슨 철마 말은 없으나 그날 잊지 못하리...」, 『경향신문』, 1986. 6. 20. [9].

군이 파괴한 남한의 기관차로 자연스럽게 둔갑했다.¹¹ 파괴된 '화통'에 관한 진실은 은폐되었고 그 이미지는 잔혹한 남침의 증거로서 북한의 만행에 대한 비유적 표상으로 종종 인용되었다.

2. 민족 화합과 통일의 이미지

'화통'은 전쟁의 폭력이나 파괴와 같은 공격성을 보여 주지만, 그와 동시에 상처를 온몸에 지닌 채 스러져가는 모습으로 전쟁의 총체적 피해자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따라서 일찍부터 '화통'의 이미지는 참혹한 현장의 폭로 수단에 그치지 않고 상처 입은 민족에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서 민족의 슬픔과 동일시되었다. 그 상처와 슬픔은 언젠가는 치유되고 극복되어야 하는데, 그때는 정지된 기관차가 다시 운행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화통'은 미래의 운행을 함축하며 역사적으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향한 희망적인 상징이 될 수 있었다. 일례로 『신동아』(1977. 6)에 실린 '화통' 사진에는 "...鐵路도 녹슬었고 철길엔 잡목만이 무성하지만 이 길을 통해 開城, 平壤, 新義州로 찾아갈 날을 기대해본다..."¹²라는 설명문이 달려 있어 이산가족 상봉, 귀향의 가능성, 민족의 연결 등을 연상시킨다.

1980년대를 시작하면서 '화통'과 중단된 경의선 철도의 이미지는 민족통일에 대한 염원을 표출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월남한 시인 申基宣(1932년생)은 '화통'을 "北으로 달리고 싶은 恨"을 지닌 채 "民族相殘의 아픔을 말하는/ 傷痕 투성이의 기관차"이며 "통일의 소원 속에/ 언제까지나 울고 있는/ 아픈 민족의 기관차"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 시는 1980년 한국전쟁 30주년을 맞아 간행한 기념 화보집에 '화통'의 사진과 함께 수록되었다.¹³



5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부분 『南北』 1978. 7.

11 '화통'은 최근까지도 일반적으로 남한의 기관차로 오인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2004년 한 신문에서는 「장단역 녹슨 철마는 북 기관차」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그간의 오해를 바로잡고 있다. 『문화일보』, 2004. 9. 23.

12 金炯晔(사진 李五峰), 「休戰線 155마일」, 『新東亞』(1977. 6).

13 申基宣, 「휴전선에 웅크린 기관차」, 한국전쟁편찬위원회, 『한국전쟁』(통일공론사, 1980),



또한 1980년대 중엽 시인 金芝河(1941년생)는 "경의선 화통/ 그것을 타고 내가 당신에게 갈 수 있다면 ... 경의선 끊어진 철로 위에/ 홀로 남겨진 기관차 속에 홀로 남을/ 민족의 외로움을 생각하며/ 소주 한 잔을 국토 위에 붓는다."라고 하여 비무장지대의 외로운 '화통'을 분단된 민족의 외로움에 비유했다.¹⁴

1980년대 후반에는 6월 민주화 항쟁(1987)과 서울 올림픽(1988) 등의 성공으로 국가적 자신감이 커지면서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가 고조되었다. 남북대화화 통일

논의가 활발히 전개됨에 따라 1990년대 초에는 경의선 복구 가능성과 '평화시' 건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때 장단역을 중심으로 한 장단 들판은 단절의 아픔을 가장 크게 안겨주는 곳으로서 '평화시' 건설의 최우력지로 꼽히기도 했다. 그 내용을 보도한 『동아일보』는 '화통'의 사진을 싣고 민족분단의 비극적 장소가 "만남의 땅"이 되어 "통일의 꿈"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있다.¹⁵

또 같은 해 9월에는 '한민족 통일기원' 특별 기념우표가 발행되었는데,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전경에 '화통'의 사진을 넣었다¹⁶. 이 디자인은 "분단의 고통을 없애고... 남북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발전과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기원하며 "휴전선에 멈춰진 철마가 쉽없이 달리기를" 바라는 국민적 정서가 반영된 것이다.¹⁶

그런가 하면 1990년대 초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는 '한 나라, 한 겨레'라는 단원에 '화통'의 사진이 참고도판으로 실려 있다. 교과서의 본문에서는 남과 북이 휴전선에 막혀 갈라졌지만 한 조상으로부터 온 한 민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기차길이 끊겨 서로 만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¹⁷. 이제 '화통'의 이미지는 반공보다는 민족의 단일성을 강조하며 화합을 위한 교재 역할을 하게 되었다.

pp.298-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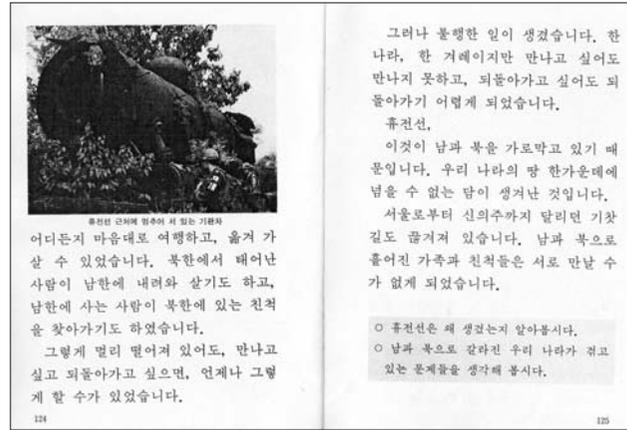
14 김지하, 「녹슨 기관차 가득히 꽃을」, 『검은 산 하얀 방』(분도출판사, 1986), pp.82-83.

15 「장단 들판 '통일의 꿈' 익는다」, 『동아일보』 1991. 6. 25. [23].

16 한국조폐공사, 「녹슨 철마와 감격의 만남」, 한민족통일기원 특별우표 발행 안내문, 1999. 9. 11.

17 문교부, 『도덕』3-1(국정교과서, 1991), pp.122-125.

이렇게 ‘화통’은 이미지를 통해 한국전쟁에 대한 전형적 기호(sign)가 되었다. 분단과 반공의 기호이자 화해와 통일염원에 대한 기호라는 이중성을 띠고 시대에 따라 부정적, 혹은 긍정적 의미로 코드화되었다. 이러한 양면성으로 인해 ‘화통’의 이미지는 지난 60여 년간 정치적 관점이나 남북 관계의 변화에 적응하며 민족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II. ‘화통’의 유동적 의미와 알레고리

녹슨 ‘화통’을 재현한 사진들이 그동안 다양한 의미로 인용된 것은 역사적 사건의 아우라 때문만이 아니라 증기기관차가 지닌 도상적 의미와 함께 폐허가 주는 강한 미적 효과 때문이다. ‘화통’의 이미지는 근대 기술의 성취와 그것의 소멸이라는 양극적 요소가 공존하는데, 그것은 자연과 문명이라는 대립적 요소의 상호작용이 만드는 독특한 폐허의 미학을 보여준다.

폐허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화통’은 특정 사항에 대한 단일한 상징물을 넘어 유동적이며 다의적인 알레고리로 해석할 수 있다. 발터 벤야민은 자연과 역사에 대한 사유방식으로 상징 대신 알레고리를 제시하면서 폐허를 알레고리의 전형으로 간주했다.¹⁸ 상징이 명료하고 총체적이며 은유적인 반면 알레고리는 모호하고 다의적이며 환유적이다. 알레고리는 서로 다른 텍스트들이 중첩될 때 항상 발생하는데, 그 구조 속에서 하나의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에 근거해 해독된다. 따라서 알레고리는 온전하거나 확고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유동적이며 단편적인 것과 관련된다. 벤야민은 이러한 알레고리 개념이 사물로서 현전하는 것이 바로 폐허라고 강조한다.¹⁹

폐허는 현재 부재하는 타자들의 차이와 자연의 ‘흔적’으로서 이전의 의미에 대한 보충물의 역할을 한다. 즉 대체에 의해 의미작용을 일으키는 알레고리적 이미지

7
문교부 『도덕』 교과서
3학년 1학기
1981년

¹⁸ 발터 벤야민, 조만영 옮김, 『독일 비애극의 원천』(새물결, 2008), pp.232-240.

¹⁹ 발터 벤야민, 조만영 옮김, 위의 책(2008), pp.232-233.

에 해당된다.²⁰ ‘화통’은 폐허로서 지나간 것의 흔적과 함께 과거의 시간을 압축하고 있으며 현재의 다양한 경험을 유발한다. 그곳에서는 의미들이 중첩되고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는데, 그러한 의미는 언제나 변화할 수 있는 알레고리로서 항상 새로운 독해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1. 근대성의 이중적 지표

‘화통’은 본래 증기기관차로서 근대 산업사회와 기계문명의 도상을 나타낸다. 19세기 초에 발명된 증기기관차는 철과 화력이 결합되어 움직이는 강력한 기계로, 산업혁명의 산물이자 신세계 개척을 담당한 주역이었다. 증기기관차는 실용화된 후 근대문명의 상징으로서 널리 재현되었다. 19세기 중엽 윌리엄 터너(J. M. W. Turner)가 그린 〈비, 증기, 속도 Rain, Stream and Speed〉(1844)²⁰는 비바람을 헤치고 힘차게 전진하는 기차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림 속 증기기관차는 열차들을 이끌고 화면의 정중앙 소실점으로부터 뻗어나오는 검붉은 철교를 따라 급격히 다가온다. 질주하는 시커먼 기관차는 자연과 견줄 만큼 강하고 불가사의한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경이와 공포를 동시에 유발했다. 기차는 인간의 기술에 대한 긍지와 기쁨이 가져다 줄 미래의 낙관적 비전을 암시했지만 그 속에는 대형 사고와 같은 위험의 요소가 항상 내재해 있었다. 한편 전원 속에 멀리 기차가 달리는 풍경은 잃어버린 고향, 동경의 세계에 대한 아련한 기억과 함께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켰다.

우리나라에서 증기기관차는 1899년 경인선이 개통되면서 처음 도입되어 서양의 기술과 경험을 전파하며 근대화를 주도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차와 철도는 일본,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외국 세력들의 각축과 식민 지배의 욕망을 나타내는 사물이었다. 결국 모든 철도부설권을 획득한 일본은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을 차례로 개통시키고 대륙침략과 식민수탈의 발판으로 삼았다. 철도 건설과정에서는 양민에 대한 무자비한 토지수탈, 강제 노력동원, 생필품 수취가 행해졌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초기 증기기관차는 일제 강점과 철도 건설에 얽힌 악몽 같은 고통을 상기시키는 슬픈 기억의 매체였다.

그러나 기차는 한편으로 문명의 전파자로서 어두운 현실을 넘어 이상적 공간에 대한 희망을 주기도 하였다. 김찬영의 글에서 기차는 “문명의 특산물”로서 동분

²⁰ Craig Owens, “The Allegorical Impulse: Towards a Theory of Postmodernism,” *October* 12(Spring 1980), pp.67-86, and *October* 13(Summer 1980), pp.59-80 참조.

서주의 욕망을 일으키고 채워주는 “문명의 은택”을 베풀고 있으며,²¹ 주요한의 시에서는 기차가 “초록색과 금빛의 세계”, “태양의 나라”를 향해 “어둠을 뚫고 구름을 헤치고 비바람 미치어 뛰는 한밤중을” 전진하는 “낮익은 친구”로 묘사되었다.²² 기차는 식민지 어둠 속 “슬픔으로 통하는 노선”이었지만 “빛의 수사학으로 둘러싸인 문명의 통로”이자 교사로서 “근대의 두 얼굴”을 지니고 있었다.²³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기차는 육상의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으로서 눈부신

활약을 하였다. 기차는 군대의 대규모 이동과 물자의 보급, 피난민 수송 등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다. 9·28 수복 후 유엔군이 북진을 계속할 때 기차는 승리와 통일의 희망을 상징했다. 피난 시절 부산에서 간행된 『부산일보』(1950. 11. 19)에는 “철마 감격의 북진 계속: 서울-평양 열차운행”이라는 제목으로 경의선 재개통 소식을 알리는 기사가 실렸다.²⁴ “우리의 열차는 또다시 무너진 삼팔선을 넘어 기적소리도 우렁차게 제일선장병의 뒤를 이어 북진에 북진을 계속하고…”라는 문장에서 보듯이 북진하는 기차의 힘은 북진하는 군대의 힘에 상응한다. 기차의 진행은 군대의 진격에, 철도의 연결은 민족의 통일에 비유되어 전쟁의 완전한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 기사가 나간 지 채 한 달도 안 된 12월 초부터 유엔군은 중공군의 공세에 밀려 평양, 홍남, 원산 등지에서 철수했고 이듬해 1월 초에는 서울까지 다시 내주고 말았다. ‘화통’은 바로 그 북한 철수 시점에 휴전선 근처에서 파괴된 것으로, 1·4 후퇴 직전 밀고 밀리던 서부전선의 상황을 실증하는 증거물로 볼 수 있다. 이 기관차는 평양으로 가다가 저지당하고, 서울을 향해 후퇴하다가 또 다시 휴전선 부근에서 정지당했다는 점에서 좌절된 승리, 유보된 통일의 꿈을 의미한다.

8
윌리엄 터너 (비, 증기, 속도)
1844년 캔버스 유화
90.8×121.9cm
런던 내셔널갤러리

21 金瓚永, 「K兄에게」, 『廢墟』1(1920), p.27.

22 朱耀翰, 「特急列車」, 『三千里』(1932. 4), p.90.

23 김행숙, 『창조와 폐허를 가로지르다』(소명출판, 2005), pp.64-67 참조.

24 『부산일보』, 1950. 11. 19.

이처럼 경의선 중단점 부근에서 반세기 이상 서 있었던 ‘화통’은 전쟁의 참상과 분단된 현실을 가리키는 직접적인 지표일 뿐 아니라, 넓게는 증기기관차로서 민족 수난의 역사와 문명개화의 비전을 동시에 내포하며, 근대적 경험 및 인식을 반영하는 포괄적 지표로 볼 수 있다.

2. 폐허의 알레고리

‘화통’은 한국전쟁 때 단번에 파괴된 후 방치되어 서서히 남아갔다. 즉 ‘화통’은 인위적으로 파손된 현대적 폐허이자 자연에 의해 풍화된 전통적 폐허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재료인 철은 쉽게 부식되고 녹이 슬어 기관차를 적갈색으로 균일하게 변모시키면서 폐허화를 촉진시켰다. 폐허가 됨으로써 이 증기기관차는 기존의 상징적 의미에 덧붙여 새로운 알레고리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먼저 화통’은 이중적인 의미에서 트라우마를 내포한다. 첫째는 한국전쟁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으로부터 입은 개인적·집단적 트라우마이다. ‘화통’은 북한에서 사용되던 열차였고, 연합군의 총격으로 파손된 채 돌아가지 못하고 남게 되었다. ‘화통’의 몸에는 1,020여 발의 총탄 흔적들이 선명히 남아 전쟁의 참상을 직접 증언하고 있다.²⁵ 상처투성이 기관차가 대변하듯 전쟁의 생존자, 혹은 직·간접적인 목격자로서 우리가 겪는 트라우마는 개인과 국가의 삶, 즉 한국 현대사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둘째는 폐허가 불러일으키는 ‘죽음 본능’과 관련된 것으로, 모든 기억과 역사의 근저에 내재한 트라우마이다.²⁶ 소멸되어 가는 열차의 잔해는 이성이나 문명으로 억압되었던 본능적인 힘이 자연과 더불어 파열하면서 이성적 주체에게 가하는 외상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라카프라가 제시한 ‘구조적 트라우마’에 해당되는데, 특정 사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초역사적 부재, 멜랑콜릭한 상실과 연결된다.²⁷

25 하은하, 앞의 글(2008), p.68.

26 ‘죽음 본능’은 자아가 이드로부터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본능적 힘을 말하며 ‘외상’이란 ‘죽음 본능’이 자아의 방어막에 가한 상처이다. 프로이트는 “자아에 길들여지지 않은 본능적 충동을 만족시키는 것은 길들여진 본능을 충족시키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행복감을 준다.”고 하였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석희 옮김, 『문명 속의 불만』(열린책들, 1997), p.261.

27 Dominick LaCapra, “Trauma, Absence, Loss,” *Critical Inquiry* Vol.25, No.4(Summer 1999), p.723.

증기기관차는 차량 자체의 속성상 남성적 에너지를 대변한다. 견고한 재료와 육중한 규모, 짙은 색채, 기다란 형태, 엄청난 무게와 속력 등 명백히 남성성을 나타낸다. 또한 기적을 울리며 시간 속 스스로 움직이는 물체라는 점에서 유기적 자연, 즉 생물체와 견줄 수 있다. 그런데 녹슨 기관차 '화통'은 그 힘을 박탈당하고 퇴락했으므로 운동을 잃은 생명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화통'은 남성적 힘의 쇠퇴를 보여줄 뿐 아니라 결국 죽음으로 향하는 생명의 진행과정을 나타낸다.



기차의 물리적 소멸을 생명체와 비유한 예로 생물학자 미다스 데커스(Midas Dekkers)의 경험담을 들 수 있다. 그는 남아메리카에서 우연히 기관차 모지를 발견하고 깊이 감동했다고 한다. 그곳에는 녹슨 기관차들과 열대식물이 어우러져 있었는데 몸집이 거대한 기관차의 종말은 슬픔과 같은 극적인 느낌을 주었으며, 폐기처분되지 않고 그곳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할 수 있음이 아름답게 보였다고 한다. 데커스는 그러한 기관차의 잔해가 예전 온전했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나타내며 전에 없던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폐허가 되면 사물은 규칙이나 규칙을 벗어나 각자의 개성을 띠게 되고, 부패는 변화를 의미하며 그것이 바로 살아가는 때문이다.²⁸

폐허는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속성과 순환의 시간을 통해 창조해 내는 독립된 예술작품이자 새로운 존재의 범주로서 칭송을 받아 왔다.²⁹ 성장하는 식물과 소멸해가는 인공물이 얽힌 폐허의 장면은 생물과 무생물이라는 이질적인 두 종류의 사물이 결합되어 일종의 '전치(dépaysment)' 효과를 낸다. 보수되기 전에 촬영한 '화통'의 사진 이미지들은 대부분 수풀에 둘러싸인 모습으로 재현되었는데, 이러한 원시림 속 기관차의 폐허는 역사적 맥락을 떠나 일종의 경이로움과 멜랑콜리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2, 3.}

9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세부 필자 촬영 (2011. 7. 26)

²⁸ 미다스 데커스, 오윤희·정재경 옮김, 『시간의 이빨』(영림카디널, 1997), pp.49-54.

²⁹ Florence M. Hetzler, "Causality: Ruin Time and Ruins," *Leonardo* Vol.21, No.1(1988), pp.51-52.



10 『미노토르 Minotaure』 (1937)에 수록된 버려진 증기기관차 사진 Hal Foster, *Compulsive Beauty*(MIT Press, 2000) p.26에 재수록

증기기관차의 폐허가 주는 이 같은 경이로움은 무의식의 영역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물로서 초현실주의자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앙드레 브르통(André Breton)은 이러한 경이가 '발작적 아름다움(convulsive beauty)'을 느끼게 하며 그 발작적 힘은 억압된 것이 언캐니(uncanny)하게 회귀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³⁰ 브르통에 의하면 언캐니한 감정은 주로 생명이 있으면서 동시에 없다는 데서 느껴지는데, 그에 따른 발작적 아름다움은 베일에 가려진 에로틱한 것이나 움직이면서 동시에 정

지해 있는 것을 통해 발견된다. 이 정지된 움직임- '고착된 폭발(fixed explosive)'-의 예로 브르통은 폐허 속 처녀림에 오랫동안 방치된 열차의 사진을 제시한다.¹⁰ 이 사진은 낡은 증기기관차가 포도덩굴로 뒤덮여 있는 이미지로서 자연이 열차의 진행을 삼킬 듯이 가로막으며 은근히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남근적인 기관차와 처녀림이 이루는 이 드라마는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며 쾌락과 동시에 죽음을 연상시킨다.³¹

마찬가지로 무성한 식물들과 함께 얽힌 '화통'의 사진들은 모든 역사가 유기체처럼 생명의 조건인 쾌락과 죽음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그 이미지들은 문명과 자연, 남성과 여성, 움직임과 정지라는 상반된 요소들이 시간의 힘에 의해 서서히 융합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중화작용은 생명의 진행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것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다.

이처럼 일상적 사물이 환기시키는 죽음, 그 언캐니함에서 오는 멜랑콜리한 매력은 우리가 폐허나 잔해, 사물의 퇴락이나 분해, 종말 등에서 느끼는 심리적 강박관념을 말해준다. 그 강박은 프로이트가 인간의 정신에서 발견한 '죽음 본능'인데, 그것은 유기체가 생명 이전 상태, 즉 본연의 비유기적 물질로 되돌아가려는 분해의 열망을 뜻한다.³² 프로이트에 의하면 폐허의 광경은 죽음 본능에 부응하고 그것을

³⁰ Hal Foster, *Compulsive Beauty*(Cambridge, Mass.: MIT Press, 1995), pp.21-23.

³¹ Hal Foster, 위의 책(1995), p.5.

³²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찬부 옮김, 『쾌락 원칙을 넘어서』(열린책들, 1997), pp.9-90 참조.

강화하면서 유기체가 자기 대신 다른 것을 파괴하기 때문에 관람자 자신의 파괴를 연기할 수 있는 것이다.³³

이 같은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화통'의 폐허 이미지에서 느끼는 매력은 일종의 파괴 본능에 대한 대리만족과 위안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진보나 삶의 의지와 같은 긍정적인 관념의 뒷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감이다. 그것은 "주체의 해방과 정신의 자기의식"으로서 '숭고'의 감정에 해당된다. '숭고'란 '현시할 수 없는 것'의 존재와 그것의 표상 불가능성을 드러내는 데서 오는 것으로, 다시 말해 부정성에 근거한 쾌의 감정이다.³⁴ '화통'은 서서히 소멸해가는 전통적 폐허와 갑작스런 파괴에 의한 현대적 폐허의 이중성을 통해 파악할 수 없는 언캐니한 삶과 죽음, 다스릴 수 없는 트라우마에 직면하게 한다. '화통'은 이러한 표상 불가능한 것의 '부정적 현시'로써 '숭고'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미적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때 기계문명의 자랑스런 성취였으나 전쟁이라는 또 다른 테크놀로지에 의해 파괴되어 잔해로 변화한 '화통'은 인간이 이룩한 문화의 우수성을 내포하는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의 무상함과 파괴성 또한 보여주는 알레고리적 형상이다. 벤야민이 간파했듯이, 폐허의 자연적 붕괴과정은 과거의 역사가 현재 속에 잔존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산업문화와 역사의 한시성을 드러내는 알레고리로 해석된다.³⁵

'화통'의 사진들에서 증기기관차라는 기표는 본래의 기의(강철, 속도, 기계문명, 모더니티 등)를 잃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다. 그것은 전쟁, 파괴, 상실, 아픔, 슬픔이기도 하며 과거에 대한 회한이나 노스탤지어이기도 하고 민족, 통일, 생명, 희망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많은 의미들은 폐허인 '화통'의 이미지가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기의로서 작가, 사용자, 관람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부여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진다. 즉 테리다의 표현대로 기표와 기의가 일치하지 않는 가운데 시간 속에 의미가 항상 지연되는 '차연'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따라서 '화통'의 이미지는 "유기적 전체가 아니라 하나의 단편으로"³⁶ 고정된 상징을 넘어 유동적인 알레고리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이제 보수된 '화통'은 더 이상 자연과 어우러진 옛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지 못

한다. 그러나 사진 속의 내용들은 기억과 함께 실물 속에 여전히 감춰져 있다. 그 위에 '역사적 기념비'로서 역할이 첨가되고 대중적으로 활용되면서 문화적 층위의 새로운 컨텍스트가 형성되고 있다.

Ⅲ. '화통'의 공공적 수용

1. '화통'의 기념비성

2004년 '화통'은 문화재청에서 정한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등록문화재 제78호로 등재되었다.³⁷ 폐허인 '화통'을 문화재로 등재한 목적은 비록 암울한 기억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직면하고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전통사회와 현대사회를 잇는 가교로서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연속감과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이기도 하다.³⁸

그런데 '화통'의 문화재 등재는 파괴된 잔재 즉 일종의 '폐품'이 공공의 기념비로 공식적인 승인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며, 그것의 가치와 잠재력을 선포하는 것이다. '화통'은 국가유산으로 보호 받는 '역사적 기념비(historic monument)'³⁹로서 사회문화적 가치를 얻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프랑수아즈 쇼에에 의하면 일반적인 기념비는 처음부터 기념할 목적으로 계획된 창조물인 반면 '역사적 기념비'는 원래는 기념할 목적이 없었으나 역사가나 애호가들이 선택해 나중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리글이 제시한 '비의도적 기념비'에 해당된다.⁴⁰ 다시 말해 '역사적 기념비'라는 개념은 역사의 증거인 오래된 인공물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역사적 가치(historical value)'가 인정

³³ Wolfdietrich Rasch, "Literary Decadence: Artistic Representations of Decay,"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London and Beverly Hills: SAGE), Vol.17, No.1(Jan. 1982), p.216.

³⁴ 최소인, 「숭고와 부정성」, 『철학논총』58(2009), pp.410-418.

³⁵ 수잔 벅 모스, 김정아 옮김, 『발터 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문화동네, 2004), pp.210-222.

³⁶ 수잔 벅 모스, 김정아 옮김, 위의 책(2004), pp.224-225.

³⁷ '등록문화재'란 근·현대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시설물로서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을 등록하여 소유자에 의한 완화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등록문화재 관련법 제42조 제1항.

³⁸ 최종덕, 「'등록문화재'로서의 근대문화유산」, 문화재청, 『한국의 근대문화유산: 가려뽑은 등록문화재 30선』(문화재청, 2004), p.7.

³⁹ '역사적 기념비'라는 용어는 프랑스 대혁명기에 문화유산의 파괴를 묵도하고 국유화된 유산들에 대해 개념과 보존장치들(박물관, 목록, 분류, 재할용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이 용어는 1790년 밀란(L. A. Millan)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19세기부터는 널리 통용되었다. Françoise Choay, *The Invention of the Historic Monument*, Lauren M. O'Connell trans.(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p.14-15.

⁴⁰ Françoise Choay, 위의 책(2001), pp.12-13.

되어 지식에 따라 연대기적으로 위치가 고정되고 보존의 노력이 행해지는 공동체의 유산 또는 유물을 가리킨다.

‘역사적 기념비’로서 폐허를 대할 때 우리는 주관적, 해체적 시각보다는 객관적이고 통합된 관점을 요구받게 된다. 다시 말해 국가적 유산이라는 견지에서 폐허는 보다 고전주의적 수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한 폐허는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낭만주의적 관점보다는 좀더 공적이고 이성적인 고전주의적 관점을 요한다. 고전주의자들은 사라진 오리지널한 통일성(unity)을 폐허로부터 상상해 재구축할 수 있다.⁴¹ 폐허에 대해 가능한 한 ‘원래대로’ 의미를 재구성하고 형태를 복원 또는 보존하려는 노력이 행해진다. 그리고 복원된 ‘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집단적 기억을 위한 장소로 활용된다.

‘화통’은 보존을 위해 더 이상 부식되지 않도록 물리적·화학적 처리를 받았다. 자연적인 녹을 제거하고 인공적인 가짜 녹을 입힌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21세기의 첨단 기술이 ‘오래된 가치’⁴²를 모방하고 가장하는 데 동원되었다. 오랜 기간 자연의 법칙에 순수하게 맡겨졌던 이 기관차는 보존작업 시점의 상태로 고정되어 또다시 그 시점에서의 기억을 보존하는 특정한 기념비로 탈바꿈했다.⁴³

공공의 기념비가 됨으로써 ‘화통’은 민족 공동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교훈을 줄 뿐 아니라 희생자를 추모하고 전쟁의 트라우마를 완화하거나 치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트라우마는 혼자서는 치유할 수 없고, 생존자가 이야기를 들어줄 믿을 만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발견하거나 만들어서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⁴³

‘화통’의 기념비성은 역사적 사건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스런 기억을 상기시키는 데 있다. 그런데 폐허이자 기념비로서 ‘화통’은 비극적 기억을 되살림과 동시에 한편으로 그 기억을 넘어서야 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 폐허는 지울 수도 복원할 수도 없는, 기억과 망각이 교차하는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화통’은 유동적이고 결정 불가능한 텅 빈 공백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공백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기념하는 ‘부정적 기념비



11
‘중기기관차 화통’
경기 케이블 TV(C&M)
홍보 화면 2007. 3. 16.

(negative monument)’라 할 수 있다.⁴⁴ 부정적 기념비란 넓은 의미에서 일종의 ‘반(反) 기념비(anti-monument)’에 속한다. 전통적 기념비가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게 하는 구조”를 가졌다면 반기념비는 “기념비가 생산된 역사를 노출하고자 하는” 것이다.⁴⁵

‘화통’에는 여전히 수많은 영욕과 희비가 엇갈리며 투영된다. 전쟁 이전 기차의 힘찬 전진을 내포하는 반면 동란으로 파괴된 쓰라린 상처를 상기시키고 실향민의 한과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런가 하

면 미래의 통일과 번영에 대한 기대감을 주기도 하고 현실적 가치를 떠나 폐허로서 생명의 우주적 순환법칙과 존재의 본질에 대해 명상하게 한다. 따라서 ‘화통’은 하나의 단편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기념비’이지만, 그와 동시에 상반된 요소들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과 변화 가능성을 내재한 개방된 기념비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 기억들이 중첩된 폐허로서 기념 대상이 유동적인 반기념비에 해당된다.

2. ‘화통’의 복제와 시물라크르

20세기 후반 수많은 사진 이미지로써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했던 ‘화통’은 21세기 들어 문화재가 되었고, 영상매체나 모조품을 통해 홍보와 광고 이미지로 적극 활용되었다. 이를테면 2007년 ‘화통’의 영상은 경기방송 케이블 TV에서 주요 프로그램들 사이에 간주곡과 함께 종종 삽입, 방영됨으로써 경기 북부지역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였다.¹¹ 그 영상은 중단된 경의선 철도의 쓸쓸한 장면과 수풀에 싸인 ‘화통’의 여러 측면들을 번갈아 교차시키는데, 비무장지대 내의 적막함과 긴장감을 동시에 드러냄으로써 그 지역의 국가적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또한 파주시에서는 홍보용 우표에 ‘화통’의 사진을 넣어 태극기가 들어간 관제 우표와 나란히 붙여 사용하

⁴¹ Robert Ginsberg, *The Aesthetics of Ruins*(New York: Rodopi, 2004), pp.324-326.

⁴² Alois Riegl, “The Modern Cult of Monuments: Its Character and Its Origin,” Forster and Ghirardo trans., *Oppositions* No.25(Fall 1982), p.24.

⁴³ Jonathan Shay, *Achilles in Vietnam: Combat Trauma and the Undoing of Character* (Scribner, 1994), p.188.

⁴⁴ ‘부정적 기념비’에 대해서는 Charles Merewether, “Traces of Loss,” Michael S. Roth with Claire Lyons and Charles Merewether, *Irresistible Decay: Ruins Reclaimed*(Los Angeles: The Getty Research Institute, 1997), pp.25-40. 33-34 참조.

⁴⁵ Charles Merewether, 위의 글(1997), p.33.



도록 했으며¹² 그림엽서로 제작해 경의선 열차가 다니는 남쪽 최북단 역인 도라산 역 등에서 판매하기도 하였다¹³. 뿐만 아니라 관광안내서, 홈페이지 등에도 도입해 지역의 특성과 관광자원을 알리는 데 활용해 왔다.

이러한 '화통'의 이미지들은 그 지역이 문화재인 '화통'을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인 곳일 뿐 아니라 휴전선에 인접한 경의선의 통과지점으로서 통일의 선두에 있고 미래의 가능성을 지닌 도시라는 점을 암시한다. 그 이미지들은 대부분 장단역 자연 속에 놓인 '화통'의 모습을 재현한 것으로, 실제로는 일반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으며, 2006년 11월 '화통'이 임진각으로 운반된 후에는 영원히 다시 볼 수 없는 장면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인 폐허의 이미지는 계속 복제되어 지역의 홍보와 관광효과를 높이는 데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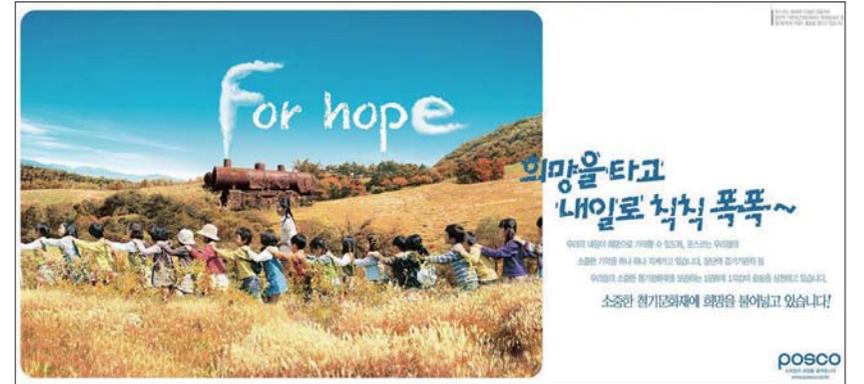
또한 '화통'은 TV와 신문 광고에도 등장했다. '화통'의 보수작업을 진행했던 (주)포스코에서는 2005년 기업 이미지를 홍보하는 광고에 '화통'과 증기기관차의 이미지를 사용했다.⁴⁶ 포스코의 광고 <For hope>에서 '화통'의 이미지는 아이들의 천진한 모습과 함께 등장한다¹⁴. 동영상 광고에서는 녹슨 기관차가 있는 들판에 야생동물이 살고 해맑은 표정의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논다. 아이들은 기관차에 다가가 이끼를 만지기도 하고 주위를 돌며 기차놀이를 하기도 한다. 이 어린이들에게서 전쟁의 위기나 위협의 느낌을 찾을 수 없다. '화통'은 이제 녹슨 잔해로 쇠락하기를 멈추고 다시 연기를 뿜으며 재가동을 시작한다. 그 연기의 모양은 철의 원소기호인 'Fe'로 보이다가 이내 'For hope'라는 글자로 늘어나 희망을 향해 전진한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화통'이 있는 장소 또한 비무장지대라는 위험한 금단의 땅이 아니라

12
파주시 홍보용 우표
2007년

13
'한국전쟁 중 파괴된 비무장
지대 안의 녹슨 증기기관차'
한국철도공사 발행 엽서
도라산역

⁴⁶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2/html/prcenter/advertise/s91c6000340p.html>(2012. 9. 27) 참조.

14
'For hope'
POSCO(주) 광고 2005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2/html/prcenter/advertise/s91c6000340p.html>.
(2012. 9. 11)



편히 다가갈 수 있는 평화로운 전원으로 변했으며, 그곳의 수물은 인간이나 문명의 소멸을 촉진시키는 잡초가 아니라 삶의 안락함과 희망을 주는 초원으로서 아름다운 정경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 광고 이미지는 실제와는 거리가 있는 조작된 광경이다. 기차의 연기와 분필 글씨, 즉 이미지와 텍스트의 만화 같은 조합('For hope')이 말해주듯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마치 사실처럼 연출한 일종의 모조현실(simulation)이다. 당시 '화통'이 있었던 곳은 접근이 제한되었으므로 광고를 촬영한 장소는 실제로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남쪽의 전혀 다른 지역이다. 또 가장 중요한 모티프인 녹슨 기관차 역시 실제 '화통'이 아니라 유사하게 제작된 모형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실물과 모형은 전체적인 분위기만 비슷할 뿐 재료, 세부구조, 훼손상태 등 많은 면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다. 결국 이 광고는 '화통'의 실제 현실과는 매우 다른 요소들을 조합한 가상의 이미지이며 일종의 모조물인 시뮬라크르로서 기능한다. 관람자는 이 장면이 모두 허구라는 것을 알지만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즐긴다. 오늘날 이미 시뮬라크르 세계의 일부가 된 주체에게 광고 속 모조 기관차는 외부의 실제와 관계없는 이미지의 세계로서 '하이퍼 리얼리티'⁴⁷를 제공하며 실재와 상상의 거리를 허물어 버린다.

또한 이 광고는 이미지와 함께 텍스트를 이용해 국내 최대의 제철 업체인 (주)포스코가 통일을 향해 앞장서서 실천하며 꿈을 주는 기업일 뿐 아니라 '철기문화재 지킴이'⁴⁸로서 사회에 기여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녹슨 고철 덩어리도 가동시킬 수

⁴⁷ 마단 사립, 전영백 옮김, 『후기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조형교육, 2005), p.268 참조.

⁴⁸ 문화재청에서 전개한 '1 문화재 1 지킴이' 운동에 참여한 (주)포스코는 철기문화재 지킴이 역할을

있는 기업의 기술력이라면 어떤 불가능도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신뢰감을 준다. 이렇게 기업이미지를 상승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해당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 광고의 목적이다. 광고 속 '화통'의 이미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녹슨 폐허이기 때문에 상품화될 수 있었다. 상품의 직접적 효용성 대신 또 다른 '기만적 아우라'⁴⁹를 형성해 소비자의 꿈을 자극하는 데 사용된 것이다.

포스코는 2001년도 광고에서도 증기기관차를 등장시킨 바 있다.⁵⁰ 그때는 달리는 기차가 지구촌 오지와 빈민촌까지 연결해 의료봉사를 가능케 하는 능력 있는 교통수단으로 표현되었다. 광고에서 증기기관차는 "믿음과 희망을 전해주는 힘"이며 "세상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통의 장치로 제시되었다. 증기기관차는 세계적으로 사실상 실용적 운행이 중단되었으나 광고 속 가상의 이미지로 부활해 처음 등장 당시 품었던 문명의 힘에 대한 기대가 아직도 유효함을 확인시킨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철이라는 재료와 그것을 가공하는 기업의 힘이 숨어 있음을 알리고 있다.

증기기관차를 이용한 포스코의 일련의 광고는 운행 중인 증기기관차와 녹슨 '화통'을 관람자의 상상 속에 오버랩시키는 효과를 준다. '화통'의 재가동은 철도의 연결을 뜻하며 기다림과 만남을 실현시키고 나아가 인류복지와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희망을 불러일으킨다. '화통'을 등장시킨 포스코의 광고는 '화통'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어두운 과거의 기억은 과거 속에 머무르지 않고 거부된다. 과거의 역사성이 부정되며 일종의 영원한 현재로 경험되는 것이다. 이러한 동시성의 경험은 모든 것을 현재로 융합하는 포스트모던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⁵¹ 이렇게 광고 속에서 '화통'의 이미지는 시물라크르로서 가상과 현실의 구분이나 과거와 현재라는 역사성을 거부하는 포스트모던한 이미지로 변모했다.

이 광고에 사용되었던 '화통'의 복제 모형은 의왕시에 있는 철도박물관에 기증되어 본관 건물 외벽 옆 잔디밭에 세워져 있다¹⁵. 이 장소는 복제 '화통'에게 마지못해 겨우 자리를 내준 것처럼 비좁기만 하다. 이곳에서 복제품은 원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해 여전히 오리지널리티를 숭상하는 박물관의 보수적 속성을 역설적으로 증언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최초의 증기기관차 이후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거



15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모형 철도박물관 경기도의왕시 필자촬영 (2007. 5. 26)

16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입진각 필자촬영 (2013. 12. 28)

듭해온 철도의 역사에 비추어 '화통'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혹은 부정적으로 다루어지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제 '화통'은 박물관 한쪽에서 한국 근현대사의 교훈을 주며 원본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라는 제 자리를 벗어난 이 복제품은 원본의 극히 일부분만을 재현할 뿐이다.

'원본(original)' '화통'은 보존처리를 마친 후 비무장지대의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했다. 통일 때까지 대중에게 공개해 교훈으로 삼겠다는 철도공사의 방침에 따라 현재 입진각 공원의 독개다리에 설치되었다. 이전된 '화통'은 야외의 구획된 공간 속에 마련된 모조 레일 위, 플랫폼처럼 꾸민 공간에 놓여 있다¹⁶. 기관차 머리 쪽에는 관람데크가 부설되었고, 강 쪽으로 철조망이 가로막고 있어 기관차의 진행방향을 차단당하게 되었다.

이처럼 현재 '화통'은 보수되어 사람들이 쉽게 왕래하는 관광지 공원에 옮겨지고

광고를 위해 제작된 모조품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옛것(오리지널)은 보존 처리되어 새로 태어나고 새것(모조품)은 녹을 입혀 옛것을 가장한다. 대중매체와 소비의 시대에 폐허는 더 이상 오래되어 낡은 것이나 재난으로 갑자기 파괴된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폐허의 생성과 진행에서조차 시간의 순서는 뒤바뀌고 압축된다.

녹슨 기관차 '화통'은 이미지와 보존된 실물을 통해 대중을 위한 광범위한 소비의 대상이 되었다. '화통'은 지역의 홍보물이나 기업체의 광고물로 활용되면서 역사적 무게를 가진 흔적들이 현재의 소비문화 가운데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한편으로는 녹슨 잔해가 새로운 실용적 가치를 획득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과거가 역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진정한 기억마저 결여한 채 상상의 과거를 숭배하는 현대의 '모조적'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어쩌면 '화통'은 인위적으로 새로 태어난 현재의 모습보다 잡초가 무성한 과거의 사진 속 이미지가 더 자연스럽고 진실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한 이미지

말아 2005년 9월 14일 문화재청과 협약을 맺고 1차로 '화통'의 보수 보존을 지원했다. 강임산, 「시민 및 기업의 문화재지킴이 참여사례와 향후 전망」, 『2006 문화재관리자교육』(문화재청, 2006) 참조.

⁴⁹ 수잔 벅 모스, 김정아 옮김, 앞의 책(2004), p.239.

⁵⁰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2/html/prcenter/advertise/s91c6000170p.html>(2012. 9. 27) 참조.

⁵¹ 마단 사립, 전영백 옮김, 앞의 책(2005), p.270.

역시 작가의 선택과 조형적 처리, 매체의 특성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기 마련이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용자와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며 집단의 목적에 의해 활용되기도 한다. 어떤 경우든 진실은 온전히 재현될 수도 경험될 수도 없고 기억은 항상 어긋난다.

‘화통’은 녹슬고 낡았지만 더 이상 자연의 폐허가 아니라 인공의 ‘새로운’ 폐허가 되었다. 그 폐허의 기념비라는 모순과 역설 속에서 ‘화통’은 시간의 순서를 뒤섞고 공간을 이동하며 의미를 역전시킨다. ‘화통’의 문화적 반복은 우리가 망각한 것을 불완전하고 단편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이 녹슨 기관차는 역사와 진실, 문명과 자연, 가상과 현실의 사이를 넘나들며 그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알레고리적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keywords

한국전쟁 폐허 Korean War ruin,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Locomotive at Jangdan Station on Gyeongui-Line, 국가적 아이콘 national icon, 알레고리 allegory, 기념비 monument, 트라우마 trauma

투고일 2013년 9월 8일 | 심사일 2013년 10월 5일 | 게재확정일 2013년 10월 12일

참고문헌

논저

강인섭 Kang, In Seob, 『녹슨 경의선 *Nokseon Gyeonguiseon*』, 범우사 Seoul: Bumwoosa, 1969.

김지하 Kim, Jiha, 『검은 산 하얀 방 *Black Mountain, White Room*』, 분도출판사 Seoul: Bundo Book, 1986.

김행숙 Kim, Haengsook, 『창조와 폐허를 가로지르다: 근대의 구성과 해체 *Across the Creation and Ruin*』, 소명출판 Seoul: Somyong, 2005.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한국의 근대문화유산: 가려뽑은 등록문화재 30선 *Korean Modern Cultural Heritage*』, 2004.

벽 모스, 수잔 Buck-Morss, Susan; 김정아 옮김 Kim Jeonga trans., 『발터 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 *Walter Benjamin and the Arcade Project*』, 문학동네 Seoul: Munhakdongne, 2004.

벤야민, 발터 Benjamin, Walter; 조만영 옮김 Cho Manyoung trans., 『독일 비애극의 원천 *Ursprung des Deutschen Trauerspiels*』, 새물결 Seoul: Saemulgyul, 2008.

사립, 마단 Sarup, Madan; 전영백 옮김 Chun Young-Baik trans., 『후기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Post-structuralism and Postmodernism*』, 조형교육 Seoul: Chohyong Education, 2005.

오창섭 Oh, Chang-Sup, 「미디어와 근대적 디자인 수용주체의 형성: 기차와 시계를 중심으로 *Media and the Formation of the Subject in the acceptance of Modern Design*」, 『디자인학연구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22(5), 2009, 11.

이반 Lee, Ban 편(ed.), 『비무장지대의 과거, 현재, 미래 *DMZ: Past, Present and Future*』, 비무장지대 미술운동연구소 Seoul: DMZ Art Movement Study Center, 1995.

프로이트, 지그문트 Freud, Sigmund; 김석희 옮김 Kim Seokhee trans., 『문명 속의 불만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열린책들 Seoul: Open Books, 1997.

프로이트, 지그문트 Freud, Sigmund; 박찬부 옮김 Park Chanboo trans., 『쾌락 원칙을 넘어서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열린책들 Seoul: Open Books, 1997.

하은하 Ha Eunha, 「근대문화유산 경의선장단역증기기관차의 보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ervation of Korea's Modern Cultural Heritage Steam Locomotive at Jangdan Station on Gyeongui Line*」, 경기대학

- 교 석사학위논문 Master's diss., Gyeonggi Univ., 2008.
- 한국전쟁편찬위원회 Publishing Committee for the Korean War, 『한국전쟁 Korean War』, 통일공론사 Seoul: Tongilgongnonsa, 1980.
- Choay, Françoise, *The Invention of the Historic Monument*, Lauren M. O'Connell tr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Foster, Hal, *Compulsive Beauty*, Cambridge, Massachusettes: The MIT Press, 1995.
- Ginsberg, Robert, *The Aesthetics of Ruins*, Amsterdam, New York: Rodopi, 2004.
- Hetzler, Florence M., "Causality: Ruin Time and Ruins," *Leonardo* 21(1), 1988.
- LaCapra, Dominick, "Trauma, Absence, Loss," *Critical Inquiry* 25(4), Summer 1999.
- Merewether, Charles, "Traces of Loss," Michael S. Roth with Claire Lyons and Charles Merewether, *Irresistible Decay: Ruins Reclaimed*, Los Angeles: The Getty Research Institute, 1997.
- Owens, Craig, "The Allegorical Impulse: Towards a Theory of Postmodernism," *October* 12, 13, Spring, Summer 1980.
- Rasch, Wolfdietch, "Literary Decadence Artistic Representations of Decay,"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SAGE, London and Beverly Hills, 17(1), Jan. 1982.
- Riegl, Alois, *Der moderne Denkmalkultus. Sein Wesen und Seine Entstehung* (Vienna, 1903); "The Modern Cult of Monuments: Its Character and Its Origin," Forster and Ghirardo trans., *Oppositions* 25, Fall 1982.

ABSTRACT

Allegory of the Rusted Locomotive
'The Locomotive at Jangdan Station on Gyeongui-Line'

Park, Eunyoung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Locomotive at Jangdan Station on Gyeongui-Line', which is installed at Imijingak park in Paju city. It was destroyed during the Korean War and abandoned in the DMZ, where it has laid in ruins for more than 50 years.

Being reproduced on magazines, journals, textbooks, pictorial albums and so forth, the images of the Locomotive have been used as symbols of anti-communism, division of the nation, people's nostalgia and even the reconciliation and reun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s a result, these images have been code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war icon.

On the other hand, the ruined Locomotive and its images give us some ontological or aesthetic experience. They can be considered as traces of time and fragments of memory. The Locomotive brings back not only the 'historical trauma' from the war, but also 'structural trauma' in the human subject, which is more fundamental. So, the significance contained in it is not a unitary and fixed 'symbol', but a complex and dynamic 'allegory'.

In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the rusted Locomotive became a registered national heritage. This means that the Locomotive became a public monument – a 'historic monument'. But it also became a negative, anti-monument as well. It was removed from the DMZ to be repaired by physical and chemical treatments that would cover it with fake rust. Being a fake ruin, the Locomotive contains the disorder of time, shift of space and diverted meanings.

The Locomotive has also been used in public propagandas and commercial

advertisements. In one ad, it was replaced by another imitation locomotive. The confusion between the original and copy reveals today's situation of simulacra. Beyond the symbolism of the war, the rusted 'Locomotive at Jangdan Station' serves as an allegoric object haunting between history and truth, culture and nature, and virtuality and reality to prove their instability.